

2 종합-‘선거 무효’ 관련 4개 단위 인터뷰

퀘스트 선본 “선거 무효 결과 수용”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정종원(Hospitality경영학 2021) 정후보

Q. 선거 무효에 대한 입장은?

결과 수용한다.

Q. 부정 투표 사안을 언제 인지했나?

개표 당일에도 전혀 몰랐다. 개표 약 1시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부정 투표 관련 이의제기가 있어 확인 중이며 개표가 2시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상황을 알게 됐다. 이후 개표가 끝난 뒤 몇 시간 뒤, 중선관위로부터 “퀘스트 선본원의 부정 투표 정황이 포착됐으며 당선 보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Q. 부정 투표를 한 선본원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지인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전화로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당사자는 계속 울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중선관위에 제출된 경위서에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징계에 대한 입장은?

중선관위가 부과하는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참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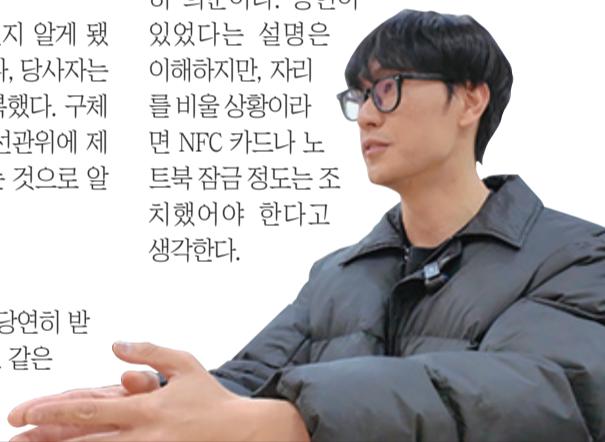
이 밤낮없이 노력해 왔고 토요일 예비군 일정에 맞춰 인사드렸던 부분 등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상대 선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

Q. 선거 관리인 부재로 생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호관대 학생회장을 맡았을 때도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다. 당시 CCTV가 기표소를 가지고 있어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기표소가 CCTV에 명확히 잡히도록 배치하고 관리 상근자의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경험이 있다. 중선관위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표소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상주 인력이 확실한 공간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심스럽지만, 무용대 선관위

가 왜 기표소를 비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연이

있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자리 를 비울 상황이라면 NFC 카드나 노트북 잠금 정도는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무효, 재선거 없어”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nu.ac.kr

엄규민(경영학 2020) 위원장

Q. ‘부정 투표’ 왜 막지 못했나?

선거 플랫폼으로 채택한 한국전자투표(kevoting)는 선관위원이 기표소에 상주하기만 하면 부정 투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선관위원이 부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겠지만 아예 몰랐기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런 지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많은 책임을 느낀다.

Q. 향후 방지 대책은?

기표소 관리와 선거의 위중함을 선관위원들에게 더 깊이 있게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거 시행 세칙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으로 상이하다 보니, 단과대학에게 지침을 내리

는 것은 월권이다. 중선관위와 각 단과대학의 선거 시행 세칙을 정비해 만일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기 쉽게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확운위가 ‘선거 무효’를 의결했다. 향후 징계는 어떻게 되나?

퀘스트 선본의 경우 징계가 정해졌다.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연금(선거보조금)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 투표를 단행한 퀘스트 측 선본원과 해당 일자에 부재한 무용학부 선관위원에 대한 징계는 미정이다. 8일 중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Q. 재선거 여부는?

재투표 혹은 재선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선거는 내년 3월에 있을 보궐 선거다. 보궐 선거 이전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노하우 선본 “선거 전반 공정성 해쳐”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공선진(행정학 2022) 정후보
성지창(약학 2022) 부후보

Q. 부정 투표 조사 중 개표가 진행된 것에 대한 의견은?

부: 개표가 절대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대 선본 측 부정행위가 밭각 됐고 중선관위도 그것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정: 지인을 통해 부정 투표 소식을 듣고 제보를 한 것은 맞지만, 퀘스트 선본원의 소행임은 몰랐다. 따라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개표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퀘스트 측이 “개인의 일탈일 뿐, 사주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정: 회칙에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어 절대 단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퀘스트 선본 소속이기 때문에 퀘스트의 총책임자인 정·부후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Q.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정: 단순 선거 결과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러한 부정 투표 행위들은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

Q. 선거 관리인 부재로 생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 선거 시스템 업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중선관위가 해당 업체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어야 한다.

부: 관리 인원 수요를 먼저 파악한 뒤 기표소 개수를 정해야 한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곳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장소 그대로 기표소를 배치해 관리 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용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인력 보완할 것”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nu.ac.kr

강진(무용학 2023) 위원장

Q.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

향후 무용학부 정기 공연과 총선거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관위 간의 인력을 충분히 보완해 공연 진행 업무와 선거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또한 선관위 운영 체계를 명확히 인수인계해 선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

Q.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은?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학우의 투표권이 침해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관위의 미흡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 다만, 선관위가 부정 행위 자체와 동일하게 오해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